

**‘한국의 선진 특허심사 비법’ 세계로 확산**

- 지식재산처-WIPO, 33개국 대상 온라인 특허심사 실무 교육과정 실시 -
- 특허심사 절차부터 신기술 심사 실무까지, 한국의 우수 특허심사 비법 제공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와 공동으로 3. 23.(월)~27.(금)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33개국 특허 심사관 및 전문가*들을 대상으로 ‘2026 한-WIPO 특허심사 실무 교육과정’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.

* 특허 정책·법률 담당자, 연구 개발 특허 관련 분야 종사자 등

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심사 체계 소개는 물론 특허심사 비법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특허심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특히 올해는 인도, 이집트, 스리랑카 등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33개국에서 총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비법을 전수받는다.

본 과정은 참가자들의 실무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▲한국 지식재산 제도 및 국제특허제도(PCT)의 이해 ▲특허출원서류 검토 및 선행기술 검색 비법 공유 ▲신규성·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판단 ▲특허심사와 사후 분쟁 단계의 연계 등 특허심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주제로 구성되었다.

특히 올해는 최근 5년간 교육생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사 실무 과목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 편성하여 현장의 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.

또한 ▲바이오·의약 ▲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심사 실무 과정을 신설하여 참가자들의 신기술 심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지식재산처 송성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“이번 교육은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 중 하나인 지식재산처의 우수한 심사 체계와 비법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”라며, “앞으로도 WIP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교육을 통해 개도국의 지식재산 행정 역량을 높이고, 나아가 우리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	책임자	과 장	김동국 (042-601-4350)
		담당자	사무관	문경록 (042-601-4332)
			주무관	김태연 (042-601-4329)